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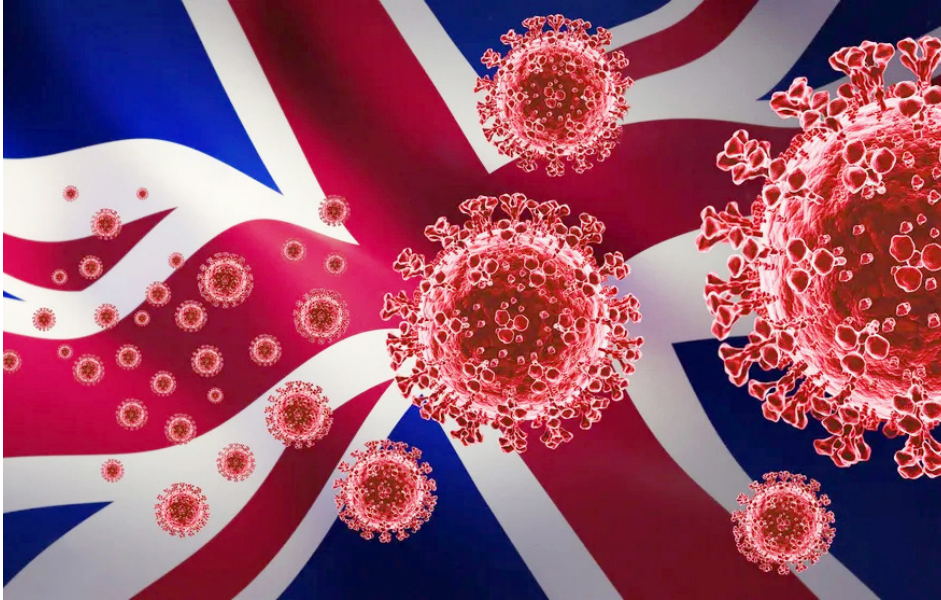


돌파프로그램 다운받기



코드찍어 "삼퇴" 하기

변이 병독 감염률, 기존 병독보다 70% 높아



2020년 12월 14일, 영국에서 신종 변이 병독 B.1.1.7이 발견됐다. 12월 19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대국민 TV 연설에서 이 변이 병독 감염률은 기존병독(무한 폐렴)보다 70%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전염병 관리기구인 국립 혈청 연구소(State Serum Institute)의 티라 그로브 카우제(Tyra Grove Krause) 주임은 연구 결과에서 덴마크가 엄격한 봉쇄 조치를 했음에도 B.1.1.7은 여전히 덴마크에서 매주 7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우제 주임은 확진자 급증을 쓰나미에 비유하면서 “이 기간은 쓰나미 현상과 같다. 당신이 해변에서 있는데 갑자기 당신은 모든 물이 밀려오는 것을 보는 것 같다”며 “나중에 쓰나미가 덮치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다.

B.1.1.7 병독은 현재 최소 70개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상해, 광둥과 북경 대성에도 잇따라

영국 변이 병독이 발견됐다.

‘전례 없는’ 병독 돌연변이

앤드루 램버트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는 논문 ‘영국의 신종 병독 변이체 중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에 대한 초기 유전자 특성 분석’에서 B.1.1.7 변이체에는 23개의 돌연변이가 있으며, 이 중 14개가 코로나(병독) 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코로나 19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지 않은 돌연변이라면서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백신은 변이 병독의 돌연적인 변화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가?

1월 29일, 미국 신종병독 대유행 수석 의학 고문 푸치는 신종백신은 변이 병독의 대항 효력이 떨어진다고 승인했다. 푸치는 “나로 하여금 매일 밤마다 근심하게 하는 일이 바로 모든 것을 탈출(掙脫)할 수 있게 하는 일종 변이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표시했다.

미국 창성(強生) 회사의 신

종백신의 최신 수치에 의하면 백신이 남아프리카에서의 임상실험 유효성은 57% 밖에 안 된다. Novavax 수치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에서 4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규모 실험에서 유효성이 50% 이하로 대폭 떨어졌다; 콜롬비아대학 실험실 연구에서 발견한데 의하면 Moderna와 후이루이(輝瑞)/바이엔 타이코 백신은 남아프리카 신종 병독 변이 독주에 대한 유효성이 6.5~8.6배 떨어졌다.

미국 약품 감독 관리기구는 지난달 긴급 사용권한을 발표할 때 백신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다는 수치는 없으면서 “또 백신은 SARS-CoV-2가 사람간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표시했다.

국산 백신의 안전성은 수수께끼다

중공전문가들이 백신에 대한 설명은 앞뒤가 다르고 백신의 실제 안정성은 수수께끼다. 작년 12월 30일, 중난산(鍾南山)은 말했다: “모든 희망을 백신에 거는 것은 옳지 않다.” 백신을 맞은 다음 “항체가 생긴 후 감염될지 안 될지,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감염된 후 증상이 없다해도 타인에게 전염할지 안 할지도 아무도 모른다.” 한달 후 중난산은 또 국산 백신의 면역 보호률은 75%라고 자랑했다; 따라서 “불량반응에 대한 경증과 중증 발생률은 각각 6/100000, 1/1000000

▶ 2면에 계속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팀의 무한 병독연구소 방문은 조사인가 연극인가?



신종 코로나병독 (무한 폐렴)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이 1월 30일 중국 무한시 무한 금은담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병원으로 들어갈때 대량의 경찰과 보안인원이 파견됐다. (HECTOR RETAMAL/ AFP via Getty Images)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은 무한에서 신종 코로나병독 (무한 폐렴)의 기원을 “조사”하고 있다. 공개 정보에 따르면 중공은 세계보건기구의 조사팀의 조사행정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팀이 소위의 “항역성과전시”까지 참관하게 배정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가 폭로한데 의하면 그들의 조사자에 대한 질문은 모두 이틀전 중공정부에 제기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1월 31일 오후,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이 차를 타고 화남해산물시장에 도착했을때 시장 입구에 몰려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차대는 곧바로 시장으로 들어갔고 보안인원은 길막이를 설치해 기타인원의 진입을 금지시켰다.

이번 방문후 전문가팀 팀원인 뉴욕 생태건강연맹 대사케이 총재는 로이터 통신에 병독의 근원이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표시했지만 그러나 그는 진

일보 이런 결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또 병독 기원을 밝히려면 복잡하기에 답안을 찾기에는 몇달, 심지어 몇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 일부분 팀원이 이상의 결론을 제기할 동시에 전 트럼프정부 인원, 현임 후버연구소 방문학자 보밍 (博明)은 2월 3일 플로리다 국제대학 국제공공사무학원에서 조직한 한차례 인터넷 활동에서 또다시 신종코로나 (무한 폐렴) 기원은 무한 병독소와 연관된다고 제기했다: “우리는 사실 리스트 한부를 공개한 적이 있다. 2019년 11월, 무한 병독연구소 내부에서 유행성 감기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했다. 이외, 또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 군부대가 무한 병독 연구소에서의 역할이다. 이는 전에 종래로 폭로되지 않은 부분이다.”

후자로 말하자면, 무한 병독 연구소 공식 사이트에 공개된 자

료를 보면 군부대 측과 일찍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5년 무한 병독 연구소 연구원 왕한중 (王汉中)과 해방군 302 병원, 해방군 군사의학과학원 미생물 유행병 연구소의 상관 과학연구팀이 밀접히 협력해 “호흡도, 장도 신발병독성 전염병의 병원체 및 방역 공제 기술 연구” 항목을 완성해 중국인민 해방군 의료성과 우등상을 수여 받았다.

역병이 대폭발 일년 후에야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중국으로 가서 발원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줄곧 질의를 받았다. 외국 매체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는 ‘고찰 (考古)’을 하는가 ‘기원을 찾는가’”란 토론을 받기했다.

뉴욕시 대학 형터학원 겸임 교수 텡보 (滕彪)는 미국의 목소리에서 표시했다: “(그들은) 폭발한지 1년이 넘어서야 세계보건기구 일부 전문가들의 조사를 허용했다. 우선 일년이란 시간에서 가장 적합한 조사 시기를 이미 놓쳐버렸다. 다음은 각종 장애를 설치했는데... 우리는 이토록 짧은 시간내에 이미 뒤쳐진 조사에서 진정한 결론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으며 병독의 진상을 발굴해내기란 정말 어렵다.”

◀1면의 계속이다.”라고 안전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북경 조양구 퇴직 의사 샤 (夏) 여성은 그가 아는 의사들은 모두 백신을 맞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백신을 절대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표시했다.

역병은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삽화: 회화 선옥



자고이래 한 지역에 예법이 크게 파괴되고 도덕이 타락하면 역병의 유행이 종종 잇따랐다. 이른바 ‘원한에는 상대가 있고, 빗에는 빗쟁이가 있기’에 역병은 단지 마땅히 보응 받을 ‘빗쟁이’를 찾으려 자신의 일하는 범위를 알고 있다.

자신이 ‘빗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빗은 업(業)이라는 뜻이며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업이 생긴다. 명나라 오우가(吳又可)는 또 자신이 저술한 ‘역병론’에서 “무릇 역병이라는 병은 비풍(非風), 비한(非寒), 비서(非暑), 비습(非濕)이며 이는 천지간의 또 다른 일종의 이상한 기에 감염된 것이다.”라며 이를 ‘여기(癘氣)’라 칭했다. 그가 말한 ‘여기’는 지금 말로 하면 병독 성분을 함유한 미시적인 물질이다. 수련계의 말로 하면 그것은 미세한 악한 영(靈) 따위의 생명이다. 목숨을 가져가려는 이런 저령(低靈)을 쫓으려면 초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비결은 약에 있지 않다

영화 《대명겁(大明劫)》중에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명나라 말기에 대역병이 유행해 명조 장군 손전정(孫傳庭)은 위난이 닥쳤을 때 임명을 받아 민의(郎中) 오유성(吳有性, 자는, 又可)을 기용했다. 오유성은 중약 ‘달원음(達原飲)’을 만들었고 환자가 복용하니 역병이 매우 빨리 사라졌다. 오

유성은 후에 ‘역병론’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달원음(達原飲)’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는가? 오우가는 역병을 치료한 묘책은 사실 약에 있지 않았다. ‘달원음’은 평범한 약일 뿐인데, 보조약을 더해 쓸모없는 것을 유용하게 했다. 만약 당신이 인간의 고인(高人), 속세를 벗어난 고인 혹은 일정한 경지의 수련인을 만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오우가는 도가의 한 문을 수행했다고 알려줄 것이다. 그 보조약은 그 법문(法門)의 한 마디 구결 혹은 ‘진언(真言)’이라고 부른다. 바로 그 한 문의 호법신을 불러 보호하게 하고 약을 마시면 호법신은 그에게 수기(授記)한다. 이 수기는 부령(符令)으로서 역신(瘟神)은 수기를 보면 이 사람을 더는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이미 위험한 사람이라

면 그에게서 병독을 빼낸다. 그때면 아무리 약한 면역력이라도 이런 뿌리 없는 병독을 이겨내며 사람은 점차 회복된다.

어떤 사람은 오우가의 구결이 무엇인가? 공개해서 ‘달원음’까지 더하면 오늘날의 역병에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첫째로 이미 실전(失傳)되었다. 중국 고대에는 절기(絕技)의 계승은 모두 ‘구전심수, 불립문자(口傳心授, 不立文字)’를 중시하기에 오우가는 ‘역병론’에 비결을 쓸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 상황이 변했다. 당시의 수련인과 신은 그들이 마땅히 관여할 일에 관여하고 더는 선을 넘지 않는다.

‘구자 진언’을 성심껏 넘하면 역병증상이 사라진다

무한 폐렴 폭발전 한 호북성 적벽시 파룬궁수련생 갑과 그녀의 남편은 폐기종 진단을 받은 오빠를 모시고 무한 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했다. 그때 무한폐과병원은 이미 역병 전문병원으로 정했으나 그들은 전혀 몰랐다.

후에 갑의 오빠와 기타 감염 환자의 병실을 구분시켰다. 갑

▶4면에 계속

2020년 12월 5일, 대만 파룬궁수련생들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 ‘구자 진언’을 배자했다.



◀ 3면의 계속

의 남편은 이유를 몰랐기에 밤이면 심지어 역병구 병실문 앞의 침대에서 휴식하곤 했다. 당시 의사는 감히 그들에게 전염병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빙빙 돌려서 말했다: “먼저 오빠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병은 단번에 치료할수 있는게 아니예요. 폐기종은 치료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병에 또 옮지 말고요...”

파룬궁수련생 갑과 남편은 적벽에 돌아온후 집에서 격리했다. 갑은 무한병원에서 호리하면서 장기간 연공을 하지 않았기에 따라서 구토, 기침, 전신이 차가운 증상이 나타났다. 그가 제 3 장 공법을 몇번 연마하자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이때 그의 남편도 호흡곤란 증상

이 나타나서 갑은 수련하지 않는 남편에게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쩌싼런하오 (真善忍好)’ ‘구자 진언’ 을 성심껏 넘하라고 알려 줬다. 얼마후 갑의 남편도 신기하게 회복됐다.

오늘날 까지도 그때 일을 말하기만 해도 갑의 남편은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렵다”고 한다.

2019년 호북성 적벽시의 한 노년 여성 파룬궁수련생 을이 진상을 알릴때 악인의 고발로 불법으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무한 폐렴 폭발기간 여자 감옥의 많은 사람들이 확진받았다. 모든 사람들은 여관에 전의돼 격리됐다. 파룬궁수련생 을과 두 바오자 (包夾, 감시인원) 는 한 방에 격리됐다.

얼마안돼 그중 한 바오자가 감염 확진을 받았다. 수련생 을

과 다른 한 바오자는 계속 며칠 더 격리됐고 며칠후 그 바오자도 감염 확진을 받았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생은 여전히 무사했다. 옥측에서 또 감염되지 않은 바오자 2명을 파견해 을을 계속 박해 했다. 얼마후 그 두 바오자도 감염 확진을 받았으나 여전히 수련생만은 무사했다.

이 일은 감옥내에서 큰 파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모두 파룬궁수련생이 번마다 감염되지 않는 것은 절대 일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다시는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므로 감옥측에서 최후에 안배한 두 바오자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리하여 그들 둘은 더는 병독에 감염되지 않았다.

■ 폭로 ■

정부에서 가짜 백신 사건을 파냈다고 선포하다

정부에서는 최근 강소, 북경, 산둥 등 지역에서 무한 폐렴 가짜 백신을 제작하는 범죄굴을 발견했으며 현장에는 적어도 3000 여개 가짜 백신이 있었다고 선포했다. 혐의범죄자는 작년 9 월부터 생리염수 (生理盐水) 로 백신을 대체했던 것이다.

이전에 중국에서 제작한 N95 마스크는 이미 가짜라는 것이 탄로나다. 이런 마스크는 Valpro Ranger 브랜드를 모방해 중국, 인도, 파키스탄, 오만, 사우디 등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개 나라에서 새로운 변이 병독 감염률이 기존 병독보다 70% 높은 가운데 대륙의 가짜 백신은 더욱 설상가상 이다. 중

국산 백신은 국제적으로 줄곧 환영을 받지 못했고, 실제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많은 질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관리가 혼잡하다. 중국산 백신을 둘러싸고 쟁론이 끊임없으나 중공은 국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중국산 가짜 백신에 대한 소문이 자자한데 성공을 위해 관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업계내의 일상으로 됐으며, 관원과 상인이 결탁하여 부패하기 그지없어 민중들은 중국산 백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중공이 가짜를 만드는 유래는 이미 오래됐다. 가짜우유, 가짜백신, 가짜약, 가짜학력, 가짜수치, 가짜뉴스, 가짜 ‘분

신 자살’, 막을 수가 없다. 거짓말과 가짜를 만드는 바람이 불어 온 나라가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모방하여 참여하지 않은 곳이 없고, 어디나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



2001년 그믐날의 ‘분신 자살’ 사건은 중공이 만들어낸 가짜 “최고봉 작품”이다. 중앙 CCTV 영상중에서 왕진둥은 전신이 불에 까맣게 탔지만 두 다리 사이에 놓인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은 마치 새 상품처럼 깨끗했다.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를 성심껏 닦아 위험에서 벗어나다

2021년 1월 13일,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파룬궁 사부님 저
그날따라 날씨는 아주
추웠다. 오후 3시
가 지나서 광동
무명시 한 40
여세 여사 설
매 (가명)
는 집에서
샤워를 했
다. 창문을
꼭 닫은 터로
이산화탄소가
스 중독으로 바
닥에 쓰러진지 한
시간 넘게 지난후에
야 시어머니에 의해 발
견됐다. 당시 설매는 이미 신
체가 굳어졌고 두눈이 뒤집어
져 있었으며, 호흡도 정지 됐
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놀란
나머지 기절했으며 십여분 후
에야 비로서 정신을 차리고 통
곡했다.

이웃은 울음소리를 듣고 뛰
어와 상황을 알고 즉시 120에
전화걸고 친인들에게도 전화
로 알렸다. 설매 친인 중 파룬
궁수련자 한 분이 있었다. 그
는 여러분들에게 당황해 하지
말라하고는 설매의 귀에 대고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 (真善忍好), 리홍
즈 (李洪志) 사부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고 했
다. 동시에 기타 친인들에게도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 (真善忍好)를 끝
임없이 닦아라고 알렸다.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중
몇분만에 설매는 의식을 찾았
고 따라서 ‘파룬따파하오 (法輪
大法好), 찐싼런하오 (真善忍



好), 파룬궁 사부님 저
를 구해주십시오.’
를 닦하기 시작했
다. 친인들도 계
속해서 부단히
닦았다.
설매와 친인
들이 한시간
넘게 닦한
후 설매의 신
체는 완전히 정
상으로 회복됐
고 의식도 완전
히 돌아왔으며 병
원의 검사에서 일체
정상이었다. 의사는

아주 놀라하면서 물었다: “정
말 기적입니다. 최근에 이산
화탄소 중독으로 여러명이 실
려왔지만 어떤이는 사망하고
어떤이는 혼미에 빠지고, 어
떤이는 며칠이 지나서야 의식을
찾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
처럼 빨리 나올 수 있습니까?”
설매는 의사에게 ‘구자 진언’을
닦았다고 알려줬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친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와 호사
에게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
을 건강하게 하는 특이한 효과
와 파룬궁박해 진상을 알려줬
다. 대부분 의사와 호사들은 모
두 조용히 들었다.

설매가 입원한 이튿날 의
사는 기타 검사를 권했지만 설매
는 괜찮다며 퇴원을 요구했다. 의
사는 말했다: “그렇다면 서명하
세요. 앞으로 우리는 책임지지
않아요.” 설매는 서명한 후 퇴원
해 다음날 바로 출근했다. 현재
설매는 생활에서나 직장에서 모
두 정상이다.

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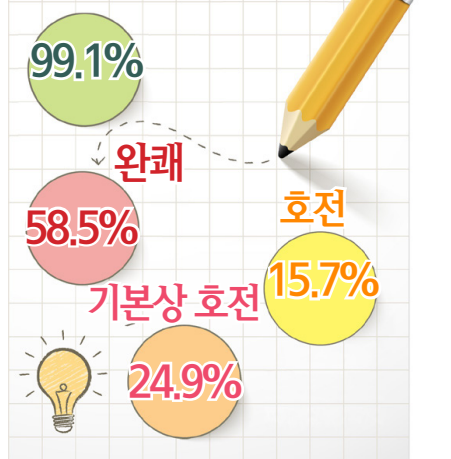
파룬궁과 건강

북경 ‘만예 파룬궁 조사보고’

파룬궁이 전해진 후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과 때문에 짧디 짧
은 몇년 사이에 수련인의 인
수가 부단히 증가되어 중공
이 파룬궁 박해를 실시하기
전 대륙에는 이미 1억이 되
는 사람이 수련을 시작했다.

1998년 10월, 의학계
전문가들은 북경시 5개 구
의 일부분 파룬궁수련생을
조사했다. 1만 2천 731명
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보다
시 피 58.5% 완쾌되었고,
24.9% 기본상 호전되었고,
15.7% 호전 되었다. 파룬궁
이 병을 제거하는 효과에 도
달한 총 유효률은 99.1% 었
다.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과는 현
저하며, 사람들의 신심건강
에 유익한 좋은 공법이다.

총 유효률



■ 기 적 ■

역병 중 파룬궁을 수련하여 기적같이 회복하다

나의 고향은 호북 무한에서 아주 가깝다. 나는 일찍 집을 떠나 외지에서 일하고 있다. 2020년 2월 중순, 나는 사촌 남동생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 그는 나의 친동생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일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내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했다. 나는 믿기지 않아 그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야 동생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의사가 CT 검사에서 폐에 음영이 있다고 했지만, 체온은 정상이었다. 그때 무슨 원인인지는 알수 없지만 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확진사례가 나오는 것이 싫은 것인지, 의사는 핵산검사도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 격리하라고 했다.

동생은 착하고 내성적이라 더 많이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현지에 적지 않은 확진 사례가 있어 그는 아주 무서워했다. 그가 간 곳은 호흡과이고 CT실에서 검사하느라 반나절

있었다. 그 곳들은 모두 감염환자들이 가는 곳이다. 남동생은 집에 돌아와서 방에 갇혀 나오지 않았다. 숙모가 밥을 문 앞에 놓으면 남동생은 스스로 나와서 가지고 들어갔다.

나중에 삼촌과 통화해서 알게 됐는데 동생은 매일 살이 빠지고 얼굴색도 검게 변해 삼촌 부부와 동생마누라 모두 조급해하고 있었다.

나는 사태의 엄중성을 느끼고 즉시 동생에게 전화해 “이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이전에 주었던 녹음(즉 사부님 설법)을 듣고 연공하고 최대한 많이 연공해라.”고 알려주었다. 이번에 그는 말을 잘 들어 내 말에 따라했다.

이튿날 내가 다시 전화해 물으니 그는 “연공 했어요, 아주 편안해요.”라고 말하고는 나에게 물었다: “누나는 이렇게 어려 해 동안 약을 먹은 적이 없나요?” 나는 “그래, 이전에 내 신체가 어떤지 너도 잘 알고 있잖아. 폐도 나쁘고 간도 고장 나고 또 많은 병이 있었어. 매일 약을 먹고 주사 맞아도 낫기는

커녕 갈수록 더 심해졌어. 현재 이제는 20여년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도 매우 건강하잖아.”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웃었다. 희망을 보았다.

그 기간 그는 매일 연공하고 사부님 설법을 들었다. 하루하루 갈수록 좋아져 삼촌도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좋아졌어. 며칠전에는 얼굴색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밥도 정상적으로 먹어. 얼굴에 웃음기도 있고 가끔은 노래도 해. 가슴을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갔네.”

며칠 전 남동생 가족과 화상 통화를 했다. 남동생은 기분이 좋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대 아주 건강해 보였다. 삼촌도 남동생이 원래는 감기에 잘 걸렸지만, 이제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했다. 전화도 청이 심해 더 많이 말하지 못했다. 내가 “견지해서 연공해”라고 말하자 그는 견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저는 온가족을 대표해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파룬따파에 감사드립니다!

■ 단 신 ■

이스라엘 백신 접종은 전세계에서 가장 앞섰지만 사망률은 여전히 폭증하다

이스라엘에서 신종코로나(무한 폐렴) 백신을 접종한 속도는 인구수로 말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하지만 확진과 사망병례는 재차 폭증하는 가운데 역병상황은 예상보다 뒤쳐졌다.

이스라엘 900만 인구는 이

미 35%가 후이루이(輝瑞) 제약공장과 독일생기회사에서 연발한 백신을 접종했다. 또 1/5은 2차 접종을 받았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외국 변이 병독의 침범을 받아 중증환자와 사망률은 돌연적으로 증가해 백신사용 성과를 상쇄했다.

이스라엘 수석 방역전문가 아리엘대학 교수 애쉬는 이스라엘 공공 라디오 방송국 인터뷰에서 “질병 유발 확률 감소는 이미 중단됐다.”고 했다.

각국은 모두 백신이 희망을 가져다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백신공급에 상관된 쟁론도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구라파주연맹과 제약공장 사이에 물건교역 연기때문에 관계가 긴장해지고 있다.